

저비용·고효율·친환경 기반 미래 위한 ‘지속가능성’ 모색

2023 물류&모빌리티 포럼

불확실·복잡성 대응방법 ‘디지털’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 연료 절실
물류 효율성 위한 풀필먼트 대세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물류·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덜 들고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안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의 강연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내용이다. <관련기사 L6·L7> 기조강연자로 나선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은 그 답을 ‘디지털’에서 찾았다. 개인이나 회사나 고객들의 요구는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물류·모빌리티 기업들의 서비스는 까다로워지는 고객들에 맞춰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송 원장은 “기상천외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로 이런 현상을 대신 전했다. 저비용·고효율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송 원장은 “수요의 불확실성, 서비스

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디지털’”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모빌리티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연료 사용이 최대 화두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조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지역)가 탄소를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50년간 잘사는 나라가 된 한국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됐다”면서 “수소, 특히 액화수소는 탄소중립에 최적화한 연료다. 운송,

산업, 발전 등에 수소에너지를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수소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의 하나인 배달 산업에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시장이 엔데믹이 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 대표적인 시장 참여자인 배달기사(라이더)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는 “배달 분야에서 EV(전기 자동차)의 도입은 유지비를 줄여 라이더들이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게다가 소음과 공기오염도 줄일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풀필먼트(Fulfillment)는 대세가 되고 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산업화 시대엔 제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이 사갈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 소비자들에게 맞춰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커머스 특화서비스가 바로 풀필먼트”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표결 앞둔 국회, 긴장감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동시에 보고됐다.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국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1

화학에 헬스·바이오, 해운업까지 유통·식품가 혁신·체질개선 분주

롯데, 화학 매출 유통실적 넘어서
향후 바이오 등 신사업 15조 투자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 트렌드와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식품회사들이 혁신과 체질개선에 분주하다. 기존 사업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 명실상부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롯데는 화학과 바이오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도 지난 2년 동안 롯데그룹 내 화학분야 계열사의 관련 매출이 유통 부문의 실적을 넘어섰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준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84조8000억원이며 이중 화학 부문은 전체의 33.8%인 28조6594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통 부문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1조6606억원으로 전체의 25.5%에 그쳤다.

롯데그룹의 화학부문은 전지소재사업 및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 육성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유통회사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모하는 모습이다”라며 “국내 e커머스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신규 진입이나 사업확장이 쉽지 않은 만큼 화학, 에너지 분야로 빠른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 15조2000억원,



(위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각사

기존 사업 부문인 유통·식품·화학 분야에 21조8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소재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2050억원(1억6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2030 글로벌 톱10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개 메가 플랜트, 총 36만L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출 예정이다. 1개 플랜트 당 12만L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한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소문만 무성한 금융지주 ‘보험